

산사로 가는 길

1. 목적 및 배경

- 가야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해인사로 향하는 산사의 길에 있는 주변의 나무 등을 소재로 하고 세계유산인 장경판전, 팔만대장경과 삼보종찰 중 하나인 해인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해설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산사로 가는 길(팔만대장경 창조의 비밀)
- 대 상 : 모든 연령
- 운영기간 : 1월 ~ 12월
- 운영형태 : 예약제 및 상시
- 장 소 : 해인사
- 주요내용 : 자연과 사찰의 관계, 해인사 및 세계유산인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 소요예산 : 없음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국립공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2회),포스터, 배너 등 제작하여 SNS 및 주요입구에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SNS 홍보(4월~10월, 월2회)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프로그램 운영 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와 효과성 조사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일정표>

| 단계 | 해설단계 | 주요 내용 | 준비물 | 해설지점 | 소요(분) |
|-----------|----------------------------------|---|-----------|--------------|-------|
| 동기 유발 | 국립공원 |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 인사 나누기 및 국립공원 소개 - 일정 소개 및 사찰 탐방 시 주의사항 | 마이크 | 성보박물관 | 5분 |
| 주제별 해설 | 자연이 준 위대한 유산 | 산사로 가는 길(팔만대장경 창조의 비밀) - 산사와 나무 - 삼보종찰 해인사 - 세계유산 장경판전·팔만대장경 | - | - | - |
| 주제 심화 | 은행나무 | 사찰과 은행나무 | 열매사진 | 가야산 자연관찰로 | 5분 |
| | 대나무 | 사찰생활에 유익한 대나무 | 사진 교보재 | | 5분 |
| | 벚나무 | 팔만대장경과 벚나무 | - | | 5분 |
| | 소나무 | 한민족의 나무 | - | | 5분 |
| | 사찰삼문 |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문의 명칭과 유래 - 해인사 창건 기념식수 고사목 | - | 해인사 일주문 앞 | 10분 |
| | 사물 | 만물에 널리 퍼지는 불교의 네 가지 악기 | 태블릿 PC | 범종각 앞 | 5분 |
| | 화엄일승법계도 | 화엄일승법계도 설명 및 체험 | - | | 5분 |
| | 해인사 삼층석탑 | 해인사를 대표하는 탑과 탑의 층수를 알기 위한 방법 | - | 대적광전 앞 | 5분 |
| | 대적광전 | 해인사의 주불 비로자나 부처 | - | | 5분 |
| | 벽화이야기 | 해인사 창건 설화 | - | | 5분 |
| 장경판전 | 팔만대장경을 770여 년 동안 지켜온 비밀 | - | 장경판전 앞 | 10분 | |
| 팔만대장경 | 외세의 침입을 불심으로 막으려 했던 옛 선현들의 지혜 | - | | 10분 | |
| 정리 | 김영환 장군 | 목숨을 걸고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했던 명장 | 사진 교보재 | | 5분 |
| 마무리 | 끝인사 | 자연이 주는 고마움 및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전달 및 재방문(타 국립공원 포함) 권유 | - | 장경판전 앞 | 5분 |

※ 해설자원 모니터링 주기 : 주 1회 (또는 월 4회)

<단위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 | | |
|------|--|---|
| 환경교육 | <h3>산사로 가는 길</h3> <h4>(팔만대장경 창조의 비밀)</h4> | 활동장소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모든 연령 참가인원 25명/자연환경해설사 2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배길효 |
| | 활동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산국립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해인사로 향하는 산사의 길에 있는 주변의 나무 등을 소재로 하고 세계유산인 장경판전·팔만대장경과 삼보종찰 중 하나인 해인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
| 준비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자료, 필기도구 등 |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 탐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유의한다. | |

| 단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도입 (생각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 인사 나누기 및 국립공원 소개 - 일정 소개 및 사찰 탐방시 주의사항 | 5분 |
| 전개 (놀이 및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의 있는 나무들 - 사찰과 은행나무, 사찰생활에 유익한 대나무 - 팔만대장경과 벚나무, 한민족의 나무 • 법보종찰 해인사 -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세가지 문의 명칭과 유래 - 해인사 고사목 이야기 - 만물에 널리 퍼지는 불교의 네 가지 약기 - 화엄일승법계도 설명 및 체험 - 해인사의 주불 비로자나 부처 - 장경판전의 비밀 - 옛 선현들의 지혜 팔만대장경 | 80분 |
| 마무리 (생각나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이 주는 고마움 및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 전달 - 김영환 장군 이야기 - 프로그램 마무리 및 재방문 권유 | 5분 |
| 시나리오 | <p>가야산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p> <p>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가야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가야산국립공원인데요,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국립공원은 나라에서 소중한 자연과 문화자원 등을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면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이 곳 가야산은 1972년 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야산이라 불리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인도에 있는 부다가야 부근, 부처의 주요 설법처로 신성시되는 가야산에서 이름을 가져왔다는 설과 가야국이 있던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 훌륭한 산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야의 산’이라 하여 가야산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p> | |

산사의 나무들

우리가 오늘 둘러볼 자연관찰로는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이어서 ‘산사로 가는 길’ 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참여하실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연관찰로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모두 보고 가시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산사로 가는 길’ 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맞추어 자연관찰로 주변의 나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과 은행나무

처음으로 살펴 볼 나무는 이 나무인데요. 무슨 나무일까요? 네, 맞습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로수로 많이 있어서 친근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은행나무는 해충,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매연, 분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신선한 산소의 배출량이 일반나무 보다 5~6배나 많답니다. 건강하고 공기까지 정화를 잘해주니 가로수로 아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의 생김새는 살구나무의 열매를 닮았지만 표면에 흰빛이 난다고해서 서양 사람들은 은빛살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보재 은행열매의 사진 또는 실제 은행열매 활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는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은행나무로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약 1,000살이 넘고 높이 67m, 흉고둘레가 11.3m에 이른답니다.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신라의 마의태자가 심었다는 설과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자란 것이라는 설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찰에는 은행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방문하셨을 때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추억과 재미로 남겠죠?



사찰생활에 유익한 대나무

사찰 주변에 가면 조릿대와 대나무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온상의 효과로 겨울철의 북풍과 외풍을 막는 데 대나무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상의 효과로 절은 대부분 깊은 산 속에 위치한 까닭에 많은 동물들이 절 주위로 몰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산 쪽으로 대나무를 심으면 뾰뾰하게 자라는 대나무 탓에 짐승들이 쉽게 절을 침범하지 못한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리로 옛 선인들은 폭포에서 흐르는 물소리 다음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대숲에 바람이 이는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대숲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이파리가 부딪치는 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안정시켜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 모든 망상과 집착과 번뇌를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숲 안과 밖에는 여러 가지 새들이 살아 항상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수도하는 승려는 이 소리에 맞춰 자신의 일과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대숲이 있는 주변에는 물이 마르지 않아 스님들이 농사를 짓기에 알맞고, 대나무가 균락을 이루고 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뿌리가 얽히고설켜어 험사리 뽑히지 않아 지진이나 태풍 등 천재지변에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대숲주변을 손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고 팔아서 절의 보수공사나 유지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는 잡귀가 싫어해서 범접하지 못한다고 전해지는 이야기 때문에 사찰주변에 대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깐 사찰 생활 문화와 관련이 깊은 식물이죠.





팔만대장경과 벚나무

앞에 보시는 나무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벚나무입니다. 꽃이 화창하게 피는 봄이면 아름다운 경관에 모두들 벚꽃놀이를 나서곤 합니다. 벚나무는 종류가 꽤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가로수로 많이 보는 왕벚나무를 비롯하여 산벚나무, 개벚나무, 울벚나무, 섬벚나무, 등등 종류가 많고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것들을 통틀어 벚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산벚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팔만대장경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산벚나무 64%, 돌배나무 15% 등) 팔만대장경판을 제작할 때 사용한 나무는 제약을 받았습니. 나무의 크기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재질은 너무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아야하며, 무엇보다 세포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경판을 만들었을 때 휘거나 뒤틀림이 적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특성으로 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산에서 흔히 만나는 산벚나무, 단풍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남쪽에 자라는 후박나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나무들은 소나무 같은 침엽수와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한두 그루씩 다른 잡목속에 섞여서 자라니까 한곳에서 벌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두 그루씩 벌채하여 이를 수집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랐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조상들이 팔만대장경판에 사용할 나무를 수집하는 것부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나무

소나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집 앞 대문에

금줄이라는 것을 달았고, 그 사이사이에 솔잎을 끼워 넣었습니다. 솔잎은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부정이 산모와 아이에게 다가올 수 없게 위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줄의 솔잎을 시작으로 아이는 소나무로 만들어진 집에서 자라며,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백년해로를 기원하며 기러기와 함께 솔가지를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은 소나무로 된 관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나무의 쓰임새로는 집의 기둥과 서까래를 만들고, 느티나무와 함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의 기둥 그리고 조선시대의 궁궐을 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으며, 다양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나무는 소나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일주문

해인사뿐만 아니라 절에 들어설 때 처음 만나는 문 즉, 사찰의 입구를 나타내는 것을 일주문(一柱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주문도 언제든지, 누구라도 자유롭게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입구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일주문은 보통 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주문 옆에서 보았을 때 기둥이 겹쳐 하나로 보여 일주문이라고 부릅니다. 해인사 일주문에는 ‘홍하문’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는 ‘붉은 해 푸른 바다에서 솟아 흰 태양으로 온 천하를비춘다.’는 원오불과선사 어록의 계송에서 나온 말로 홍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사목

지금 보고 계신 나무는 해인사가 창건 될 당시 기념식수로 심어졌던 나무로 수령 천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길을 천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고 우리나라가 광복한 1945년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해인사와의 추억이 많이 깃들어서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람쥐 또는 새가 씨앗을 물고 올라가 나무 중간쯤 떨어뜨려 고사목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무는 새로운 생명에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동물들은 그 생명을 옮겨주는 역할을, 해인사는 추억을 베어내지 않고,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문(사천왕문)과 해탈문

두 번째 문인 사천왕문입니다. 사천왕은 인도의 전통신이었는데 불교에 융합이 되어 동서남북에서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사천왕의 발 밑에 보시면 악귀들이 붙잡혀 있는데, 일주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열려 있다면 이 사천왕문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여러 고민들을 이곳에 맡겨 놓고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은 사찰의 삼문 중 마지막 문에 해당하는 해탈문입니다. 문의 이름처럼 해탈했다. 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한 부처님의 세계로 입장했다는 뜻입니다.

사물이야기

우리가락을 징, 팽과리, 장구, 북 등으로 연주하는 것을 사물놀이라고 하지요, 그 사물놀이의 유래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4가지의 물건이고 사물이라고 합니다. 예불이나 의식, 식사시간을 알리는데 쓰이지만 사물을 치는것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큰 북은 범고라고 하고 가축이나 짐승을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칩니다. 예불시간에 맨 먼저 치는데요.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북을 치실 때 마음심 자를 그리면서 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종은 범종이라 하고 지옥의 중생이 이 소리를 듣고 지옥에서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친다고 합니다. 저기 저 물고기는 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목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럼 목어는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칩니다. 목어 앞의 구름 모양의 판은 운판이라고 부르고 공중을 떠도는 영혼, 새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칩니다. 이렇게 사물을 치는 이유는 지금은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생명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고자 사물을 치는 것입니다.

화엄일승법계도

이것의 명칭은 화엄일승법계도입니다. 의상대사가 오랜 기간 동안 스승인 지엄화상 밑에서 제자가 되어 열심히 수련을 하던 중 지엄화상이 의상대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나에게서 배운 것을 여기에 다 적어보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선지 한 장을 내어 주십니다. 의상대사는 화선지에 그림을 그려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신 스승님은 “자네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배울 것이 없겠네” 라고 말씀하시며 의상대사를 칭찬 했습니다. 그 때 의상대사가 그린 그림이 여기 바닥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화엄일승법계도라고 부릅니다. 화엄도의 뜻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첫 지점에서 그림을 따라 계속 가다보면 마지막에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즉, 처음과 끝이 하나요, 너와 내가 하나이고, 삶과 죽음도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석탑의 특징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탑은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이탑은 몇 층일까요? 네, 제가 탑의 층수를 쉽게 알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을 살펴보겠습니다. 탑도 사람처럼 머리 몸 다리 3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저기 맨 위에 동글동글한 부분이 상륜부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얹어져 있는 듯 한 모양의 부분이 탑의 몸인 탑신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모반듯한 돌이 탑신부를 받치고 있는데 네모반듯한 돌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탑의 층수는 탑의 몸 탑신부만 세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탑은 몇 층탑일까요? 네 삼층입니다. 또 참고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탑은 홀수입니다. 그 이유는 옛 조상들은 양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층수는 홀수로 탑의 모양은 짝수로 맞추어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 부처님 이야기

여러분들은 사찰에서 큰 법당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그런데, 해인사의 큰 법당 이름은 대웅전이 아닙니다. 사찰의 큰 법당 이름은 그 안에 모신 주불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당사진, 부처님사진 교보재) 석가모니부처님이 계신 법당을 대웅전이라 하고, 손에 약병이나 약합을 들고 계신 약사여래불이 계신 곳을 약사전이라고 부릅니다. 서방의 세계에 머물면서 자비를 베푸는 부처인 아미타불을 모신 곳은 아미타전 또는 극락전,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해인사는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하여 창건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절이 모모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대신 화엄경전 상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곳은 대적광전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벽화이야기-해인사 창건설화

벽화를 보시면 두 분의 스님과 신하, 그리고 한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문고리에 실이 달려서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이 벽화는 해인사의 창건설화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부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신라 제40대 임금인 애장왕의 왕후가 몹쓸 병에 걸려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써보아도 뚜렷한 효험이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여러 곳으로 널리 보내어 덕이 높은 도승을 모셔올 것을 명하였고, 고승을 찾아 헤매던 한 신하가 가야산 근처를 지나다가 하늘로 뻗쳐오르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수행을 하고 있는 순응과 이정 두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하가 그 곳을 찾아오게 된 내력을 이야기 하자 두 스님은 오색실을 내어주면서 실의 한 끝은 궁전 뜰 앞의 배나무 가지에 매고 다른 한 끝은 문고리에 매어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신하가 돌아가서 두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

니 과연 궁전 뜰 앞의 배나무가 말라 죽으면서 왕후의 오랜 병이 서서히 나아갔고, 왕과 왕후와 신하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애장왕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몸소 가야산으로 가서 두 스님께 인사를 드린 뒤 은혜의 보답으로 그 자리에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그 절이 바로 가야산 해인사입니다.

장경판전의 비밀

이곳까지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가 바로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장경판전이라고 합니다. 장경판전을 처음 세운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장경이 해인사로 옮겨진 때가 1397년 미루어 볼 때 지금의 건물은 조선 초 무렵인 1488년쯤에 지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부분적인 중수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위치상으로 대적광전을 등 뒤에 두고 해인사 경내의 맨 뒤쪽 가장 높은 곳에 판전 건물이 입지함으로써, 장경판전 건물이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4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앞 건물은 수다라장이고, 뒤에 있는 안쪽 건물이 법보전 그리고 양 건물사이에 있는 동서사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수다라장과 법보전이고 동서사간전에는 고려 각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판전은 해발 1430m의 가야산중턱에 해당되는 약 655m 높이에 서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남쪽 아래에서 북쪽으로 불어 올라오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판전 건물을 스쳐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경판전이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될 만큼 왜 우수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경판전이 왜 세계문화유산과 국보로 지정 될 만큼 우수한지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위와 아래창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보시기에 창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장경판전의 창의 크기를 달리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정확한 답은 공기의 순환입니다. 단순히 통풍만을 위했다면 창의 크기를 같이 크게 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장경판전의 과학적인 우수성 중 공기의 순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창을 통하여 들어온 바람은 다시 건물의 외부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 때 큰 창으로 들어온 바람은 작은 창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내부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람은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기의 대류현상으로 판전 내부에는 적당한 온도유지와 습도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적인 이유는 바닥재입니다. 그러면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많은 답들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옛날 우리조상들이 사용했던 것은 숯 이었습니다. 그 외에 소금과 모래석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재료를 사용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계절적으로 장마철이 있기 때문 입니다. 장경판전이 들어선 자리는 배수가 잘 되는 토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장경판전의 바닥 재료로 석회, 숯, 소금을 겹겹이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회, 숯, 소금 같은 것은 모두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밑바닥에 층을 이루고 있으므로 비가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건물 안의 습기를 빨아 들여 습도를 낮추고, 반대로 건조할 때에는 머금었던 습기를 내뿜어 적절한 습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식 자동습도조절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유심히 보시면 시멘트를 발라 놓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닥의 마감으로 모래, 석회, 황토 등을 섞어 비벼서 마감처리를 해서 시멘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에 대한 부분입니다. 햇빛은 경판의 보호에 득실이 반반입니다. 그 속의 자외선은 이끼, 곰팡이, 곤충, 식물 등 생물의 번식을 막는 작용을 하며, 적외선은 흙바닥을 데워 공기의 대류를 촉진시켜 건물 안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외선과 일부 가시광선은 목재를 변질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합니다. 장경판전은 햇빛의 이런 이중성을 건물의 방향과 살창 구조, 경판을 올려놓는 판가를 통해 조절하고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서남향에서도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좌향을 하고 있으며, 앞뒤 벽면에는 칸마다 상하 2단의 살창을 낸 개방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좌향과 구조를 통해 건물 내부의 필요한 곳, 즉 흙바닥으로 햇빛을 적절히 걸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서, 판가를 벽면에서 멀찍이 띄우고 흙바닥에서도 30cm 쯤 높여 설치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직접 경판에 닿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옛 선현들의 지혜 팔만대장경

이 곳 해인사가 삼보종찰 중 법보종찰로 불리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대장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팔만사천법문을 적은 경판이라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고 경판의 판수가 팔만여장이라 팔만대장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대장경이라 하여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또 있는데요.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있었으나 몽고의 침입 때 대구 부인사에 있던 것이 불타 없어져 다시 만들게 되었다해서 재조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대장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대장경이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대장경인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판 중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1,258장이 보관 되고 있는데요.

이 판들은 한 장에 약 640여 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글씨라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여기서 세 번째 우수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많은 글자 중에 오탈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법문집 중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합니다.

김영환 장군 이야기 및 마무리

이제 마지막 해설로, 이렇게 우수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셨던 한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6.25전쟁 당시에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은 대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한군이 해인사를 근거지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기에 이를 소탕하기 위해 해인사에 폭격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인사는 완전 잿더미가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공군 김영환 대령은 해인사는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폭격으로 인해 문화재가 불타 버릴 것을 염려하여,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사형처벌 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판을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던 것은 문화재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김영환 장군의 노력으로 해인사와 장경판전 팔만대장경은 지금까지 잘 보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폭격을 감행했다라면 우리는 지금의 문화재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을 것 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재임을 그분은 아셨고 오늘의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문화재뿐만 아니라 자연 역시 오래도록 아끼고 사랑해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탐방하실 때에도 오늘 느끼신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다양한 해설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다른 국립공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